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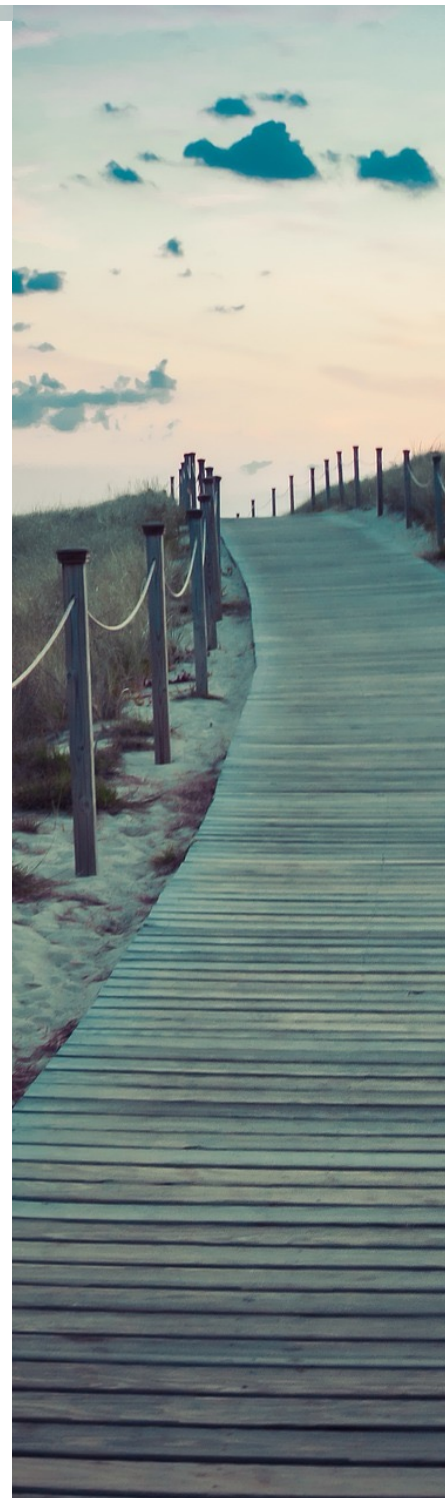
며 세움을 입어....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였으니, 그 안에서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예수와 함께 감사하고 예수의 뜻에 합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 4.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금년에 무더운 여름을 지내왔습니다. 그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지켜 주시고 태풍과 폭우와 온갖 환경오염 중에서 지켜 주심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위험과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지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세상에 불효처럼 큰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불효는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은 생활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행사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심령과 가정이, 감사하는 심령과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 BIG HOPE CHURCH 큰소망교회

2025년

추석가정예배

## 감사를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48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 다같이  
성경 봉독 --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신약 326쪽) -- 다같이  
말씀 ----- 감사를 넘치게 하라 ----- 인도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일, 부모님께 감사할 일, 선조들에 대하여 감사할 일, 이웃과 친구와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감사할 것이 결코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묵살해 버리고 불만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 감사를 넘치게 하는 마음과 생활로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요?

### 1. 믿음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하였으니 믿음에서 있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없는 곳에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신앙의 발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불평을 하지만,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어떤 역경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바클레이는 “감사는 신자 생활의 끊임없는 특징을 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자의 특징은 감사요, 불 신양자의 특징은 원망입니다. 천국의 특징은 감사요, 지옥의 특징은 불만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만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지만 성령은 감사를 일으키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속한 자는 항상 불평 하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항상 감사한 생활을 합니다.

### 2.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감사 생활을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사죄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예수 믿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조상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은 믿지 않는 자손들도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우리들은 신앙을 받았으니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요 은혜의 표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요, 자손들은 조상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네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자각하고 신자다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질적 행복은 감사하기 쉬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은혜나 정신적 축복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은혜의 귀중함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축복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27절에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니 사람이 신령한 은혜의 귀중성을 모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 3. 예수 안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6-7절 말씀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